

만남

2014 10
통권 189호

묵주기도 성월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母子之情을 넘어서(마르 3,31-35) —————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관대함의 교훈(지혜서 12,19-22) —————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77~79 -----	7
가정 교회	부모의 기도 4 -----	11
찬 양	사랑은 -----	13
우리들의 이야기	-----	14
나눔	-----	16
공동체 소식	-----	17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 평화

주님께서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는 지역들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전교 주일

전교 주일을 맞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되살리도록 기도합니다.

2014년 10월 칼럼글

母子之情을 넘어서(마르 3,31-35)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며...

어머니 마리아를 문전박대하여 돌려보내는 예수의 마음이 편했겠는가?
 눈앞의 아들을 보고도 손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서글펐을까?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하느님의 뜻(天命)을 찾고 행하는 사람들은 혈육의 정도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한다.

안중근과 그 어머니에 얽힌 이야기 한 토막.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난 안중근은 혈벗고 굶주린 데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어느 추운 겨울 날 고향으로 향했다. 일본 관헌의 눈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캄캄한 밤을 이용하여 겨우 집에 도착한 안중근은 어머니가 기거하는 방 앞으로 가서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방 안에서 냉랭하게 내발았을 뿐이었다.

"내 아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러 나가고 없다. 아직 큰일을 이룩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단 말이나." 안중근은 서글프고 기가 막혔다. (손거울, 현대사회연구소 간 197쪽)

그러나 다음 순간, 크게 깨닫는 것이있었다. 안중근은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매정하게 혈육의 정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숭고한 어머니의 뜻이 있었기에 영웅이 있다.

하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예수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가슴앓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끝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모자지간의 정을 뛰어넘어야 했다.

그리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되었다. 母傳子傳

❖ 관대함의 교훈(지혜서 12,19-22)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05장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1절을 부릅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시는 주님, 저희 마음에 오소서.
- 저희를 기억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 삶의 이야기 (진행자)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지혜서 1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당신 자녀들의 원수들로서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까지 악에서 벗어날 시간과 기회를 베푸시며 그토록 주의와 배려를 다하여 처벌하셨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얼마나 신중하게 심판하셨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당신께서는 맹세와 계약으로 좋은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

다. 저희는 그냥 벌하시지만 저희의 원수들은 만 번을 더 채찍질하시니 저희가 남을 심판할 때에는 당신의 선하심을 잘 생각하고 삼판을 받을 때에는 자비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기다리고 배려해주신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秦)나라 목공이 양산(梁山) 일대로 사냥을 나갔을 때 일이다. 평소 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명마 몇 필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곧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시작되고 지산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왕의 말을 잡아먹는 현상이 발각되었다. 관리들은 왕에게 주민들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신하들을 꾸짖고 “이미 말은 사라지고 없다, 하물며 말을 잡아먹었다고 그들을 처형한다면 이는 인간의 목숨이 한날 말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냐. 이미 죽은 말은 어쩔 수 없는 것” 그들을 풀어주라고 명했다. 그러면서 목공은 수십 통의 어주(御酒)까지 하사하며 “내 듣기로 말고기를 먹고 좋은 술로 입가심을 하지 않으면 속병이 난다.” 고 하니 그들에게 이 술을 보내 몸을 보하게 하라고 명했다. 마을주민들은 이 같은 목공의 관대함과 자애로움에 감동되어 한없이 감사하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고 한다. 훗날, 적군의 침입으로 목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포위망을 뚫은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마을 주민들이었

다고 하니 목공의 관대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 사제와의 통교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마침성가 (진행자)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1절을 부릅시다.



교리77

성경 길잡이 (46)**아가**

이 책의 명칭은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첫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책을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이 책은 젊은 시골 남녀 한 쌍의 구혼과 혼인을 묘사하고자 영성하게 구성된 사랑 시 모음집 같습니다. 그들은 장애물 속에서도 서로를 찾습니다. 솔로몬 임금 자신의 청혼의 환상조차도 그들의 사랑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큰물도 끌 수 없습니다.’ (아가 8,6-7)

어법과 문체로 볼 때, 저술 시기는 유배 시대 이후로 추정됩니다. 솔로몬과 이 책의 관계는 단지 이 작품이 이스라엘의 으뜸가는 현자인 솔로몬의 것으로 여겨졌던 책들에 속한다는 것뿐입니다.

수 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아가의 생생한 묘사와 정열적인 어법을 격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가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는 하나의 비유로 간주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부애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영감을 받은 시로 여깁니다. 아마도 아가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사랑의 시로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기호가 다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의 머리채는 염소 떼와 같다오.’ (아가 6,5)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고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에서 쓰는 사랑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담긴 열정적인 시의 진가를 배울 수 있고, 부부 사랑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 사랑의 상징이 될 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들은 이 노래들을 통해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또한 어느 누구나 사랑이신 하느님께 기도로 바칠 수 있습니다.

교리78

성경 길잡이 (47)**지혜서**

‘지혜서’라는 제목은 하느님의 지혜에 관한 전문 서적인 이 책에 적절합니다. 대부분의 가톨릭 학자들은 그 내용과 문체에 근거하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이 기원전 50년경에 썼을 것이라는 견해에 일치합니다. 저자는 그리스어로 썼으며 구약성경의 70인 역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마지막 세기는 팔레스티나와 그 밖의 지역에 사는 유대인에게 혼란의 시대로서, 세기 초에는 유다의 바리사이가 헬레니즘화하는 대사제, 알렉산드로스 야네우스와 그에게 협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을 상대로 격렬한 내란을 벌였습니다. 그 싸움이 알렉산드로스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그와 그의 후계자들은 히브리 전통과 그리스 철학과 사상을 혼합시키려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는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이 팔레스티나의 유대인 수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국제도시에서 사는 유대인은 온갖 종류의 이교도 신앙을 접했으며 온 세상과 심지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까지 집어삼키려는 듯 기세등등했던 그리스 문화의 새로운 사상 때문에 옛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 문화에 익숙하고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했던 이름 모를 한 유대인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지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민족에게 참된 지혜는 이교도 신앙이나 철학에서가 아닌, 하느님의 계시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하느님의 지혜와 또한 그 지혜와 관련한 인간의 현세와 사후 운명 간 관계를 다루었으며 영원한 생명의 실체에 대한 가장 명확한 구약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1,1-6,21)

둘째 부분은 그 지혜를 찬양하고 청하기 위해 솔로몬을 설교대에 세웁니다.(6,22-9,18)

셋째 부분은 구약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 하느님 지혜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이집트 탈출 때 하느님께서 유대인을 섬리로 돌보아 주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과 이집트인에 대한 그분의 징벌을 대조하여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에게 그 당시 이집트

와 그 밖의 곳에서 유행하던 그리스 사상 때문에 유다의 전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10,1-19,22)

지혜서는 신약성경 저자들이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혜서 2,12-20의 내용이 마태오 복음서 27,39-43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리79

성경 길잡이 (48)

집회서

이 책의 명칭은 저자가 지혜서 50,27에서 밝히고 있는 그의 이름 ‘시라’를 그리스식으로 부르는 시락에다 책이라는 말을 붙여 ‘시락서’라고도 합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글을 썼던 현인으로서 기원전 180년경 이 작품을 히브리어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 후 기원전 132년에 그의 손자가 이집트에서 이 책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영감을 받은 본문에 속하지 않는 머리글을 추가합니다. 이 그리스어 역본은 알렉산드리아의 종교 서적 목록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늦게 가톨릭 교회가 모임에 사용하는 ‘교회의 책’으로 알려질 만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집회서는 격언과 잠언을 내용에 따라 정리한 상당히 긴 모음집입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느님과 가족에 대한 의무, 우정, 재물의 사용, 말의 절제, 어린이 교육, 식탁 예법, 병, 건강 등입니다.

집회서의 문체는 간결하면서도 생기가 넘칩니다. 잠언은 재치 있고 슬기로우며 주어지는 조언은 상식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자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며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줄 덕행을 행하라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 하느님의 뜻,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열게 합니다. 시라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자비에 대해(18,1-13),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 능력(39,12-35)에 대한 아름다운 묵상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훌륭한 구절은 자연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업적을 기리는 구절

일 것입니다.(42, 15-43, 33) 마지막으로 그는 지혜가 생명이 없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님을 구약의 위대한 인물의 활동을 통해 입증합니다. 시라는 그들을 기리며 닮아야 할 모델로 추천합니다.

지혜문학을 나가며...

지혜서가 깊이 통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 (집회 1, 14)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은 공포가 아니라 공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하느님께 대한 공경심과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바탕 위에서 삶을 일구어 나갈 때, 이 지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을 가장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서는 하느님의 영감에서 흘러나오는 오랜 세월에 걸쳐 유효성이 입증된 원칙 위에서 삶을 형성해 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 희망과 두려움, 매일의 삶, 사람들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한 지극히 단순하게 대답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일생 기도하는 삶의 양식을 제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도록 준비시킵니다. 지혜서는 마치 수많은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우리와 나누고자 하는 사랑이 넘치는 노인(老人)의 조언과도 같습니다. 시라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을 경외함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장수를 허락한다...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다.(집회 1, 1.11.14)

비안네 신부

부모의 기도 4

오늘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마음에 마음을 포개어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어
 당신께 그리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것을 없애 주십시오.
 당신이 저희에게 꿈꾸시는
 사랑의 충만함으로부터 떼어놓는 모든 것을 없애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기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서로의 일치 안에서
 우리는 당신의 현존과 당신의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랑의 전율을.
 용서의 부드러운 향기와
 거부의 고통과
 그리고 깨어진 약속의 쓰라림을.

당신은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을 따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쳐서 걸음을 멈출 때
 계속 걸도록 이끌어 주셨고,
 여정에 필요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을 때
 한줄기 바람을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실수를 참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상대의 실수를 참아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서로 함께 함으로써
 당신 사랑의 감미로움을 맛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인생이라는 책을 읽는 법을
 혼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 서로를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 서로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움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멈출 수 없는 쇄신과 거듭되는 치유
 우리는 사랑이라는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립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샘
 그것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십시오.
 당신 사랑만이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서로를 껴안을 수 있는 힘인 까닭입니다
 두려움과 이기적인 추구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기쁨에 넘쳐 당신 앞에 나아가리이다.
 당신께서 우리 사랑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이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랑이 당신께서 우리의 삶 안으로 보내시는 모든 이들
 가족과 친구들, 이웃과 다정한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관심으로 넘쳐흐르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기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에 대해
 매일을 새 날이 되게 하시는 치유와 희망에 대해....

317

사 랑 은

최현숙



1. 사 랑 은 침 목 속 에 도 마 음 을 주 고 받 는 것 보 지
2. 사 랑 은 소 란 중 에 도 평 온 에 잠 기 게 하 네 함 께



알 아 도 듣 지 알 아 도 때 론 오 해 로 마 음 이 괴 로 워 도
하 면 서 자 유 로 운 것 혼 자 있 어 도 함 께 하 는 기 뻔 을



끝 내 믿 는 것 오 래 참 는 것 감 싸 주 는 것 자 기
느 끼 게 하 네



를 고 집 하지 않 는 것 부 서 지 며 완 성 되 는 것

함부르크 공동체 김 막달레나

이 글을 읽고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함께 나누고픈 마음에 글 띄웁니다.

죽복 안에서 사는 20가지 방법

1.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하고 3번 외쳐 보세요.
2.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부모님은 살아있는 당신의 최고의 수호천사입니다
3. 남이 잘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내가 잘되는 일입니다.
4. 꽃처럼 활짝 웃으세요. 얼굴이 밝아야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5. 자신의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6.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늘과의 직통전화입니다.
7. 말 한마디도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좋은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8.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마세요. 기가 살아야 모든 일이 잘됩니다.
9.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과 내일은 상황이 다릅니다.
10.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듭니다. 마음속에 한 자루 촛불을 켜세요.
11. 말조심 하세요.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어도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갑니다.
12.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내가 치유해 줘야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13. 나를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늘의 선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14. 좋은 책을 읽고 또 읽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로 변할 것입니다.
15. 집안 청소만 하지 말고 내 마음도 매일 청소하세요. 마음은 행운이 깃드는 성전입니다.
16.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마세요.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17.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말은 나의모든 것을 바꾸어 줍니다.
18. 죽는 소리를 하지마세요. 가난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달려옵니다.
19.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남도 나를 사랑합니다.
20. 잠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세요.

성령 묵상 기도회를 다녀와서...

3박 4일 성령묵상기도회 피정에 다녀왔습니다. 세례 받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남편 필립보씨도 대모의 초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고, 매우 내성적이며 조용한 남편은 몹시 불편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피정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큰 한숨을 쉬기 시작하였고, 숨이 막혀 온다고 하였습니다. 쉬는 시간도 거의 없는 강행군이다 하며 못 마땅해 하는 사이, 대모님과 저 사이에 눈길의 대화가, 그리고 소리 없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묵주를 꼭 쥐고 주님께 의탁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달혀있는 마음의 문이,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의탁하였습니다.

음악 봉사자의 가슴 깊이 파고드는 고백과 찬미의 노래, 신부님의 체험담과 강의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별로 나누어진 그룹 대화에 그곳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오며 느낀 시련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자기의 미숙한 믿음도 털어 놓는 시간 속에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슬며시 짓는 미소가 따듯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조용하신 남편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잠시 놀랐습니다. 속한 조에서 마지막 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선정되었다고 피정 중에 들었습니다.

성령 하느님께 찬양기도하며 그리고 신부님들께 돌아가며 안수기도가 마친 뒤 흥겨운 음악에 행복의 찬양 율동하며 춤을 주는 남편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파견 미사 중에 남편의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 처음에 피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대모님의 권고로 왔을 뿐입니다. 찬찬히 묵상을 하는 중에 피정(避靜)은 세속을 잠시 피하여(避) 하느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부인의 초대, 대모님의 초대가 아닌 하느님의 초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피정을 마치며 저는 물론이고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묵주기도의 유래

묵주기도(로사리오)의 뜻은 ‘장미꽃다발’이라는 뜻이다.

묵주기도의 기원은 초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신(神)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쓰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전해져 신자들은 기도 대신 장미꽃을 봉헌하곤 했다. 특히 박해 당시 신자들은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끌려가 사자의 먹이가 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는데 이것은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데 합당한 예모(禮貌)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박해를 피한 신자들은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두면서 순교자들이 썼던 장미 꽃송이마다 기도를 한 가지씩 바쳤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는 이집트 사막의 은수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시편 150편을 외웠는데, 작은 돌멩이나 곡식 낱알을 머리에 쓰는 관처럼 둥글게 엮어 하나씩 굴리며 기도의 횟수를 세었다고 한다. 이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편 대신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바치기도 했으며, 수를 셀 때 불편하였기에 열매나 구슬을 150개를 노끈이나 가는 줄에 꿰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런 관습들이 묵주기도를 탄생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12세기 삼종기도가 널리 보급되면서부터 성모신심의 영향으로 주님의 기도 대신 성모송으로 대체되어 바치다가, 13세기부터는 영광송이 삽입되었다.

또한 이 당시 ‘알비파’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위협하자 성모님이 도미니코 성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단을 없애는 무기로 묵주를 주셨고, 성인은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알비파 이단을 물리쳤다고 한다.

이때부터 ‘묵주기도’라는 정식명칭이 생겼고, 그 후 15세기부터는 도미니코 수도회에 의해 전 세계로 퍼져 성모신심의 기도가 ‘매괴회’가 생길 정도로 공식화 된 기도가 되었다.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데 레 사 (St. Teresa)	김 점 님 최 영 숙	18일	루 카 스 (St. Luke)	안 태 호 이 동 빈
4일	프란치스코 (St. Francis)	김 진 호 김 재 영	22일	살 로 메 (St. Salome)	정 명 옥
	프 란 츠 (St. Franz)	김 기 현	23일	이냐시오 (St. Ignatius)	윤 용 기
	프란치스카 (St. Francisca)	양 현 호 김 인 순	28일	시 몬 (St. Simon)	김 동 수 최 화 영 최 순 남
	프 랑 크	김 기 년			
7일	로 사 리 아	송 화 현			
15일	아빌라 데레사 (Avila St. Teresa)	임 소 아 조 인 회			
16일	말가리다 (St. Margaret)	강 순 행			

❖ 10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데 레 사 (St. Teresa)	김영자(B) 황옥순(H) 정옥선(H) 김경자(H) 노금순(O)	15일	데 레 사	임진영(O)
4일	프란치스코 (St. Francis)	권중일(B) 부준우(O) 임종수(O) 조우성(H)	18일	루 카 스 (St. Luke)	이현석(H) Setiahardja Ulung(O)
	프란치스카 (St. Francisca)	윤주해(B) 안수경(O)	28일	시 몬 (St. Simon)	유영도(H)
	프 랑 크	정유진(H)	30일	루 실 라	권명옥(O)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세월호의 희생자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0월 27일 ♣이원일 요셉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8월 31일	9월 7일	9월 14일	9월 21일
계(€)	193.30	232.90	358.13	207.52

❖ 10월 성가번호

10월	입 당	봉 헌	마 침
5일	461	217	271
12일	329	342	246
19일	23	340	63
26일	46	213	247

❖ 10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0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5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이명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김진호(프란치스코) 이현묵(요셉)	1구역
12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2구역
19일	박귀동(토마) 이선주(로사)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봉사단	3구역
26일	김애란(세실리아) 김매자(베로니카)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최장용(레오) 곽케빈(요셉)	4구역

❖ 자진헌납금 ❖

8월 3일 - 9월21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김형웅, 손수희, 육종인, 강신행(2), 이철우, 민경화, 이경규, 이영희, 진윤희, 임소아,
김용일, 현영해, 김기연, 박귀동, 권지연, 방영자, 배성우, 손대조, 오옥수, 우동천,
윤용기, 이공종, 이기열, 이수웅, 이철우, 정정숙

구좌입금 : 강일남, 허두욱, 김치수, 김대현, 허길조, 광케빈, 최종금, 김진호, 김동수,
남궁 춘배, 백정선, 최성자, 허채열, 홍경영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10월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셋째 주일(어르신 합창단 발표)을 제외한 주일
미사 전에 함께 목주기도를 봉헌합니다. 14:10분부터 꾸리아의 주관으로 시작
하오니 다 함께 아름다운 장미다발 위길 희망합니다.

2. 10월 3(금) - 4(토)는 주일학교 신앙학교입니다.

일시 : 10월 3일(금) 12:00 - 4일(토) 17:00

대상 : 고학년 주일학교 학생

장소 : 만남 성당 및 사제관

준비물 : 침낭 또는 침구류, 세면도구, 참가비 20유로

세부사항은 고학년 주일학교 교사 이선주(로사) 선생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10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재독일 사목자 회의가 뮌헨성당에서 있는
관계로 본당 신부님께서 출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3구역
소공동체는 구역장님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4. 10월 19일(주일)부터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어집니다.

대상자는 김보경 자매님, 김경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입니다.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브레멘 공동체의 귀한 일꾼이신 박경자 세라피아 자매님께서 환갑을 맞이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언제나 건강히 생활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브레멘 공동체에 학생이나 젊은 신앙인들이 함께 하길 언제나 기도드립니다. 저희 공동체는 늘 노력합니다만 주위에 브레멘 근처에 공부하거나 머물러 계시는 한국 분들이 있으시면 미사 참여를 권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미사 30분전 15:00부터 목주기도를 바칩니다.
3. 이번 달부터 미사 후 전례교리가 시작되어집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9월 13일(토), 공동체 정기미사는 <성 십자가 현양축일>미사로 암스테르담 본당의 김태원 요셉 신부님과 우리 신부님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추석맞이로 빗어두었던 송편을 맛보며 고향과 조상님들을 그리워하는 밤이기도 하였습니다.
2. 소공동체 기도모임이 9월 27(토)일, 최 한우 바오로 형제 가정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풍요로운 가을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 영광 드리기를 청합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732 1104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8903264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웅 야고보		6310912
			총 무	김 정 자 잼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4년 10월 ❖ - 목주기도 성월

일	요일	전례일	기관·단체 행사	비고
1	수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선교의 수호자) 대축일		
2	목	수호천사 기념일	꾸리아	
3	금	개천절	1구역 소공동체	
4	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브레멘 17:00
5	일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사목협의회, 14:10 로사리오	
6	월			
7	화	목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		
8	수	한로		
9	목	한글날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0	금		2구역 소공동체	
11	토			오스나브뤽 17:00
12	일	연중 제28주일 순교자 박대식 빅토리노 치명일(1868년)	청년회 소공동체 14:10 로사리오	
13	월			
14	화		독일 사목자 회의 -17일	
15	수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본당 신부님 출장 평일 미사 없음
16	목			
17	금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3구역 소공동체	소공동체 자체 실시
18	토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하노버 15:30
19	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연중 제29주일, 전교 주일)	예비자 교리	어르신 합창단 발표
20	월			
21	화			
22	수			
23	목	상강	연령회	
24	금		4구역 소공동체	
25	토			
26	일	연중 제30주일	14:10 로사리오	2차헌금 (세례, 선교지원)
27	월			
28	화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29	수			
30	목			
31	금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아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040 24 34 92
Fa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viannae@hanmail.net
본당신부님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76 3900 7430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